

금리 인상에...저소득층·자영업자 시름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릴...투자·소비 위축 불보듯 고위험가구 대출비중 8.7% 타지역보다 높아 가계 부실 우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게 됐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소득이나 보유 자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가구 대출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점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가계·기업들의 부실이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금융 불균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최악으로 치닫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줄'을 죄는 '엇박자' 정책을 펼친데 따른 비판도 적지 않다.

◇소득 적은 광주·전남 대출자, 직적탄=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전남 전체 가계 대출 중 취약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비중은 8.7%에 이른다. 대전·충남(7.9%), 인천·경기(7.4%), 부산·경남(7.3%), 대구·경북(6.6%) 등 타 권역 평균 대출비중(7.3%)보다 높은 실정이다.

특히 광역시별로는 광주가 8.2%로 가장 높고 도별로도 전남이 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취약자주는 다중채무(3곳 이상에서 빚을 낸 경우)이면서 저소득(15단계 소득 등급 중 11~15등급)층이거나 저자산(10만 원 이하) 대출자인 고위험가구와 고위험개인사업자(다중채무자이며 저자산 차주)를 말한다.

한은의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

리가 오르면 대출 보유가구의 상환 부담도 커진다.

가뜩이나 극심한 경기 침체기에 소득 약화로 힘겨워하는 이들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원리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경우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 '고위험 가구'는 전국적으로 34만6000가구에서 38만8000가구로 늘어난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한 바 있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

융부채 비중도 5.9%에서 7.5%로 높아진다고 예측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목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광주·전남 저소득·저자산 가구 등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72.1%로 타 권역 평균(67.4%)보다 높다.

시중은행 등 제 1금융권의 외면으로 고금리에 제 2금융권 문을 두드리는 저소득 가구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자칫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지역 저소득 대출자들의 부실이 확산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투자·소비 회복 더 어려워지나-경기 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소비·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당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8대 수출 주력업종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광주·전남 주력산업은 3년 뒤 경쟁국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분야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 여건도 '쇼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경기 침체기에 금리를 올려 불황의 골을 더 깊고 오래가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전망도 커지는 실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연탄 나눔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 직속 봉사단 소속 직원들은 지난 1일 광주시 북구 임동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고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찾아 15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 내 타이어 전용시험장인 프루빙 그라운드.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타이어 기술력을 갖추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핵심 공간이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글로벌 기술력 확보 총력

곡성공장 '프루빙 그라운드' 1.2km 18개분야 시험로 갖춰 최고 품질 타이어 개발 주력

금호타이어는 올해 침체 터널에서 벗어나 도약하는 게 최대 과제다. 수십년간 축적해온 타이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글로벌 탑 10' 타이어업체로 성장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 내 타이어 전용시험장인 프루빙 그라운드(proving ground)는 새로운 주인을 맞은 이후 회사의 새로운 먹거리 육성과 타이어 기술력의 질적 도약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금호타이어가 개발, 선보인 고성능 SUV 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 F1(포뮬러원) 타이어 시제품 및 런 플랫(Run flat) 타이어, 신차용 타이어 등도 이곳에서 성능 시험을 거치며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곡성군 입면 25만3770㎡ 부지에 조성된 시험장은 트랙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관제탑 모양의 시험관리동을 비롯,

총길이 1.2km(폭 80~140m)에 걸쳐 18개 분야의 시험로를 갖췄다.

시험장에는 맑은 날이나 비가 올 때, 그리고 빙판길에서 타이어의 구동력과 제동력을 평가하는 시험로 뿐 아니라 울퉁불퉁 각종 돌출물을 부착한 시험로, 물 웅덩이를 만들어놓고 자동차가 그 위로 지나가면 발생하는 수막현상과 배수현상을 반영, 타이어 패턴을 연구하는 수막 현상 시험장, 핸드링 코스, 코너링을 하는 선회시험장 등이 조성됐다.

지난 29일에도 테스트 드라이버들은 다양한 장애물이 설치된 시험로를 시속 100~160km속도로 변화무쌍하게 휘젓고 다니며 타이어 성능을 평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타이어 성능을 평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공간이라는 점에서 향후 곡성 공장에 대한 시설 투자 계획에 타이어 전용시험장의 확대·인력 확충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신차용 타이어 개발 및 신제품 개발의 최종성능을 검증하는 장소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타이어 업체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용퇴' 선언

3선 연임 도전 안해...내년 3월까지 업무

김한(사진) JB금융지주 회장이 '용퇴'를 선언하며 3선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

김한 회장은 지난 30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저는 차기 회장 후보로 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듯이 '어느 순간에는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JB금융그룹이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앞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공식 발표했다.

김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까지지만 회장직을 수행한다.

김 회장은 재임기간 중 금융권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며 3선 연임이 유력시됐음에도, 최고의 성과를 거둔 시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내렸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 2010년 3월 전북은행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JB금융지주를 설립하고 회장에 올랐다. 이후 2016년 한차례 연임했다.

김 회장은 전북은행장에 취임한 뒤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며 우리캐피탈과 더케이자산운용사를 인수했고 당시 전북은행보다 외형이 컸던 광주은행까지 차례로 인수하며 전북은행을 5개 계열사를 거느린 JB금융지주로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 2016년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CCB)을 인수하며 지역금융사 최



로 글로벌 수익 발굴에도 나섰다. 현재 광주은행을 통해 중국 무석시, JB우리캐피탈을 통해 미얀마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거점을 두고 해외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방금융그룹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수도권 진출에 나서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16곳, 31곳의 수도권 지점을 두게 됐다.

그 결과 전북은행장 취임 전인 2009년 총자산 7조원, 순이익 529억원이던 전북은행은 지주사로 전환한 뒤 올해 3분기 현재 JB금융지주의 총자산은 47조1691억원, 순이익은 2855억원으로 각각 6.5배,

5.4배나 성장했다.

한편,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차기 회장 선출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내년 3월께 김 회장의 후임으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83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9 10 13 28 38 45	3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233,681,125	15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3,175,911	58
3 5개 숫자일치	1,337,469	2,306
4 4개 숫자일치	50,000	106,763
5 3개 숫자일치	5,000	1,767,089

한국광산업진흥회, 북유럽 광융합시장 공략

'융합산업 시장개척단' 구성 덴마크 등 자율주행차 소개

한국광산업진흥회가 북유럽지역 광융합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2일 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진흥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사업'에 따라 최근 3개 기관, 4개 기업이 참여하는 '라이다 융합산업 시장개척단'을 구성, 덴마크, 스웨덴 등을 찾아 국내 기술력을 소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였다.

라이다는 전파를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더(radar)와

달리, 빛을 이용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린다.

시장개척단은 덴마크 기술대학 자율주행 자동차센터, 스웨덴 볼보 무인자율주행차 개발센터 등 라이다산업 관련 글로벌 유망기관·기업 등을 돌아다니며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개척단은 이들과의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핵심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